

제 103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9.05.19)

국사회화에 나타난 국체관념의 시각화 -도쿄양성관 “국사회화”를 중심으로-

박삼현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교수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내외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막부에 대한 불신, 천황에 대한 인식이 나뉘었을 때, 기존의 민족국가를 새로운 유형의 정치공동체로 변형시키려고 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일본파시즘이 만들어낸 발명품은 아니었다.

천황이데올로기는 이미 19 세기메이지시대부터 메이지 헌법과 황실전범의 제정, 국가신도의 정비, 그리고 교육정책을 통해 제도화된 근대일본국가의 권위주의적인 정치규범 내지 국가이념이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민족형성을 위한 여타의 정치종교처럼 1930 년대 이전까지는 비교적 관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천황과 관련된 국가적 경축일이 제정되게 되는데, 천장절은 1868 년에 정해진 일본 최초의 국경일로 천황의 탄생일임. 천황의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에서 天長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다.

메이지에서 쇼와 초기에 이르기까지 10 개 정도의 경축일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대개 천황과 관련된 것이었다. 1927 년에는 메이지천황 탄생일인 11 월 3 일을 경축일로 정하여 명치절이라 하였고, 경축일에는 신사나 궁전, 그 밖의 여러 곳에서 의례를 거행했는데, 기념식전에서 히노마루가 게양되고, 기미가요가 제창되었다.

<Q&A>

Q. 일본의 국체관념 자체를 시각화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서양에서 전제군주를 표방하는 그림들을 표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일본만이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점들이 있는지?

A. 아마도 그건 프랑스 전제를 모델로 하여 메이지 성덕기념회화가 아닐까 한다.전쟁화와 같은 예술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도 물으셨는데, 거기까지는 연구하지 못했지만, 좋은 연구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1930 년대는 전쟁이데올로기가 중요한 테마로 대두 되는 시기인데,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을 듯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는것같고, 개인적으로는 보여주신 그림은 사람보다는 풍경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생각하시나

- 서양의 그림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지역의 서양화가 등장한다